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3. 17.(화) 07:00 ~ 22:00
- 상담건수: 427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1명)

- 프로그램명 : 「세상의 모든 음악」
- 방송일시 : 1FM (월-일) (18:00-20:00)

클래식 FM을 청취한 지 30년이 넘는 청취자이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해당 방송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 많이 울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다. 제작진분들에게 감사하다.

○ 출연자 섭외 제언(3명)

- 프로그램명 : 「불후의 명곡」
- 방송일시 : 2TV (토) (18:05-20:00)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므로 출연자 선정에 높은 윤리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휘재 씨가 해당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여러 논란 이후 충분한 공적 설명이나 사회적 공감 과정 없이 공영방송에 다시 출연하는 것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없음.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427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250	21	-	-	156	427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202	135	10	-	4	76	427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61	366	-	427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329	3	29	66	427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일 미니시리즈 「은애하는 도적남아」 - 후속 방송 요청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방송 제언 ○ 「사이언스 위」 - 우리말 사용 제언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후의 명곡」 - 출연자 섭외 제언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 방송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생방송 정보쇼」 - 방송 호평 ○ 「세상의 모든 음악」 - 방송 호평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생생정보」 - 「낙지」 연락처 문의 24건 ○ 「6시 내고향」 - 「편성」 문의 15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2건 ○ 「불후의 명곡」 - 「방송 정보」 문의 7건 ○ 「내고향 스페셜」 - 「블루베리 설기」 연락처 문의 6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2건 ○ 「주과수」 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18건 ○ 「인터넷방송」 문의 4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3건 ○ 「수신료」 문의 2건 ○ 「주차」 문의 1건 외 1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66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p>○ 토일 미니시리즈 「은애하는 도적님아」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1. 3.~2026. 2. 22. (토-일) 2TV 방송. (총 16부작) -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미니시리즈는 잘 시청하지 않는 편인데, 해당 미니시리즈는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고 빨리 종영되어 아쉬웠다. 배우들도 연기를 참 잘했다. 본인 지인들도 모두 재미있게 시청했다고 하니, 그 배우들 그대로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시사·교양]	
방송 제언	<p>○ 「6시 내고향」 ‘봉봉이가 간다’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3. 16.(월) 1TV (18:00-19:00) - 항상 시청한다. 본인이 손헌수 씨와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 어르신들이 손헌수 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 머슴에게 일을 시키듯 힘든 일을 시킨다. 본인 자녀들이 왔을 때 시키면 되지,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그리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우리말 사용 제언	<p>○ 「사이언스 워」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토) (20:10-21:00) - 공영방송이 국민의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막고 우리말 홍보를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외래어를 남용하고 있다.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진행자나 출연자도 ‘에티튜드’, ‘베네프’ 등 충분히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영어나 외래어를 쓴다. 요즘 프로그램 제목이나 아파트 이름만 봐도 기가 막힌다. KBS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민**</p>

의견	세부내용
[연예·오락]	
출연자 섭외 제언	<p>○ 「불후의 명곡」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토) (18:05-20:00) -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므로 출연자 선정에 높은 윤리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휘재 씨가 해당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여러 논란 이후 충분한 공적 설명이나 사회적 공감 과정 없이 공영방송에 다시 출연하는 것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최** 외</p>
[드라마]	
방송 호평	<p>○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3. 16.(월) 2TV (19:50-20:30) -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고, 내용이 다양한 점이 좋다. 전개도 재미있게 흘러간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라디오]	
방송 호평	<p>○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R (토-일) (15:05-16:58) - 본인은 건강을 철저히 신경 쓰는 편인데, 건강 관련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어 잘 듣고 있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최승돈 아나운서가 모범적으로 진행을 잘해주어 방송을 추천하고 싶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세상의 모든 음악」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FM (월-일) (18:00-20:00) - 클래식 FM을 청취한 지 30년이 넘는 청취자이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해당 방송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 많이 울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다. 제작진분들에게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